

채란계 130만수가 뚝뚝 뭉친 분회

(회원간 친목과 계란 제값 받는데 큰 역할)

— 대한양계협회 동두천 분회 —

취재 : 김 용 화 기자

최근 양계업계는 대한양계협회 분회를 중심으로 각 도지부 및 분회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양계산업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생각보다는 단체라는 조직체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들 스스로가 "계우회"나 "육계조합"을 만들어 공동의사를 수렴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간다.

동두천분회경기도 동두천시 생연 4동589소재)도 회원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초대 최진삼씨를 분회장으로 산란계업자 6명이 1969년 동두천계우회를 발족하면서 발전하였다. 분회 눈회로서는 1975년5월16일로 등록이 되었다. 1977년 김광옥분회장을 거쳐 1986년1월18일 현재의 최영식 분회장에 이르기까지 동두천지역 산란계업자들의 이익보장을 위하여 단합해 왔다.

기자: 먼저 대한 양계협회 동두천분회를 이끌고 계신 분회장님께 본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두천분회의 현황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분회장: 현재 동두천분회의 회원은 산란계업자를 중심으로 총 46명이 됩니다. 사육규모가 130만수에 이르고 있어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미가입자가 3~5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을 만큼 단합이 아주 잘되어가고 있어 분회장을 맡은 저로서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회장:최영식,

부회장 :강현도, 총무: 송복근, 경리 : 신정아)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처리를 해나가고 있으므로 분회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동두천시의 확장으로 공해문제 때문에 연천 방향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할 입장에 있어 조금은 시간들이 바쁜 편입니다. 회원 중에는 현대화시설을 완벽하게 한 농장만도 10여 군데가 넘고 있습니다. 농장은 대개 동두천시를 비롯하여 양주군 은현면, 연천

군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자:회원이 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면 분회 운영도 수월치는 않을 텐데 어떠신지요?

분회장: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업방향이 같아서인지 단결이 잘되고 있어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분회는 회원들이 내고 있는 회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월 10,000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용이 많이 지출되면 특별회비를 내게 되는데 1년 예산이 총 1,000만원 규모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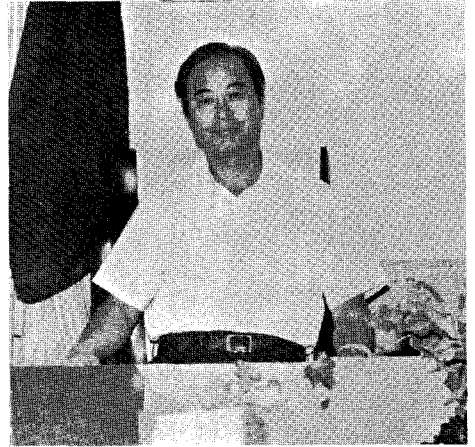
그리고 협회 가입시 출자금을 최저 3만원으로 하여 모금한 것이 500여만원이 되어 사무실 임대 및 그 밖에 기본 운영지출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알찬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업은 어떻게 전개하고 계십니까?

분회장:무엇보다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중점사업인데 매월 11일 월례회를 개최하여 정보교환을 통하여 소득증대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까지 모금한 홍보사업비100만은 이미 분회에 전달하여 졌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홍보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밖에 각종 세미나 개최, 야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회원간 유대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난기대조표"를 비치하여 협회 고시가격은 적색으로 기입하고 회원농장 출하가격을 체크 기입하여 다른 농장판매가격과 큰 차이가 날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

▷ 동두천분회
최영식분회장



도적인 운영을 하여 실제 회원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계속 시행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자:최근 분회에 나타나는 변동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분회장:눈에 띄게 변한 것은 회원들간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지만 종업원난입니다. 구하기도 어렵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원자신들이 농장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 요즘 협회사무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자: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추진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회장:저도 양계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으면 바라지만 우선 필요한 것이 동두천지역내에 G·P센터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분회에서도 이점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분처리 문제가 별 어려움 없이 지나왔지만(동두천지역은 채소재배지역) 점차 처리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해결을 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만들 계획입니다.

기자:분회운영을 하시면서 업계 전체나 아니면 협회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끼신 일이 있으실 텐데 무엇이 있는지요?

분회장:양계인 스스로가 단합되기 이전에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계란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된 것도 상인들의 농간이라고 나무라지만 결국은 생산자들이 단합하지 못하여 생긴 일이라고 볼때 앞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생산자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채란계의 경우 한국계우회나 천호계우회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 협회를 중심으로 채란분과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지부 및 분회가 더욱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여 분회간에 상호 의견교환이 자유로워질 경우 가격진통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제도의 개선으로 양계업자가 받는 불이익을 시정해줬으면 하는 점입니다.

기자:여러 말씀을 통하여 동두천분회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분회 발전에 끊임없는 노력이 회원을 중심으로 전개되


동두천 분회 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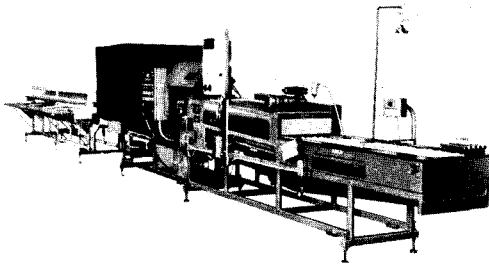
직책	성명	농장명	직책	성명	농장명	직책	성명	농장명
고문	박재용	새마을	회원	김일태	동일농장	회원	이천만	
"	이원기	형재	"	김정삼		"	안성태	안일농장
회장	최영식	대창	"	김필선	황일 "	"	유영배	
부회장	강현도		"	강명근		"	유애식	
총무	송복근	무궁화	"	강형진		"	윤승덕	청산 "
이사	김형모	봉암농장	"	이성근	계룡 "	"	윤정로	
"	이영무		"	구천석	기아 "	"	윤태현	
"	이중근	신광 "	"	국방호		"	정규석	예진 "
"	안성열	안홍 "	"	경명현	하봉암	"	정연학	신촌 "
"	조성일	삼성 "	"	남덕희		"	정택만	
감사	신호철	평산 "	"	박경서	신천농장	"	주우남	
"	황현익	오육 "	"	박수광		"	최기석	
회원	김걸	제일 "	"	박승재		"	최덕원	지일 "
"	김남억	인천 "	"	박재석	성진 "	"	한순환	
"	김상귀	태양 "	"	손배창	배명 "	"		
"	김선귀		"	이승구	하동 "	"		

길 바라며 끝으로 양계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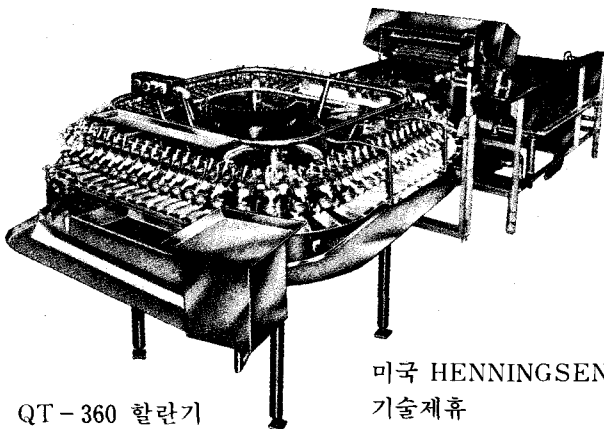
분회장: 단합해야 산다는 일입니다. 양계인 스스로가 참여의식을 가지고 남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바라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 어떤 형태로건 단결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조금제도(Check off system)를 만들어 산업발전에 지속성을 가지고 대처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방법이야 양계용사료에 부과를 하거나, 병아리 구입시나, 도계장에서 닭고기 처리시나 기타 합당한 방법을 고안하여 이제도가 시행되어야 업계 전체가 발전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자: 감사 합니다. 



Kyowa (共和) G·P 기계는 日本에서도 당연 No.1!



QT-360 할란기

미국 HENNINGSEN
기술제휴

Kyowa G·P 기계는 세계 어느 MAKER보다도 구조 및 운전이 간편합니다.

- 대형 : 15,000~40,000개/시간
- 소형 : 3,600~10,000개/시간

1. G·P 기계류 (위생란류)
2. 계란가공기계류 (액란, powder)
3. 난좌 세척기류

※ 폐사는 G·P 및 계란가공시설 전문업체임.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3-1
(성원B/D 1302-1)
송원실업(주) 776-1827,
FAX 757-3707

日本:共和機械(株)

TEL: (0868) 26-6600,